

청년의 눈으로 발굴한 정책 아이디어 공유

제9기 전주시 청년희망단 발표회 가져

전주지역 청년들이 자신과 또래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해 전주시에 제안했다.

제9기 전주시 청년희망단은 지난 9일 청년이음전주에서 청년의 시각에서 발굴한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발표회를 가졌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 아이디어는 제9기 청년희망단이 2월 발대식 이후 5개 분과로 나누어 활동하며, 월 2회 내외의 분과 회의와 역량 강화 교육, 워크숍, 활동 공유회, 멘토링 등의 과정을 거쳐 분과별로 도출한 결과물이다.

구체적으로 이날 발표회에서는 △전주시 사회복무요원 진로·취업 첫걸음 지원사업 △전주시 청년 결혼지원·공공예식장 활성화사업 △글로벌메이트즈 △전주시 청년부부 블라인드 마음상담소 △청춘가득패스 등 총

5건의 정책 아이디어가 제안됐다.

이에 시는 이번 발표회에서 사업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진행했다.

심사에는 전주시 청년희망도시정책위원회 송경한 위원장 등이 참여했으며, 평가 결과 최우수·우수·장려 정책이 선정됐다.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20일로 예정된 전주시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된다.

이와 관련 전주시 청년희망단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꾸준히 운영돼왔으며, 현재는 일자리정책·인구정책·기획소통·문화교육·복지 5개 분과로 나누어 제9기가 활동 중이다.

시는 이번 9기 활동에 이어 오는 12월에는 제10기 청년희망단을 모집해



제9기 전주시 청년희망단은 지난 9일 청년이음전주에서 청년의 시각에서 발굴한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발표회를 가졌다.

청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시장 참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영숙 전주시 청년정책과장은 “청년정책 추진 과정에서 청년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정책 제안과 역량 강화 활

동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청년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청년이 시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민생예산 601억원 추정 편성

민생경제 회복·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확대 위해

전주시가 민생경제 회복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를 위해 총 601억 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 편성기로 했다.

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분 지급과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전주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전주시 올해 예산 규모는 총 2조 9916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3차 추정안은 전주시 민생을 위한 원포인트 예산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 537억 원과 지역화폐(전주시사랑상품권) 64억 원이 반영됐다.

먼저 시는 소비쿠폰 2차분 지급개시

일(9월 22일)을 앞두고 차질 없이 예산을 편성해 준비할 예정으로, 2차분은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의 전주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2차분 소비쿠폰 역시 지난 1차분과 마찬가지로 34개 동 주민센터와 전주시사랑상품권 앱, 카드사 앱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 기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

1·2차분 모두 사용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로,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된다.

소비쿠폰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민생경제TF팀(063-281-8731~7)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시는 지역화폐인 전주시사랑상품권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쿠폰 8%를 지원받아 기존 10%였던 캐시백 혜택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3%로 늘릴 계획이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8일간 개최되는 '제4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드론축구월드컵 개막식 입장권 예매 시작

세계가 주목하는 신개념 스포츠인 드론축구 최강팀을 가리는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FIFA World Cup Jeonju 2025)의 개막식 입장권 예매가 시작된다.

전주시는 12일 오후 7시부터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의 개막식 입장권을 온라인 예매 플랫폼인 티켓링크를 통해 선착순 무료로 예매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개막식 티켓은 선착순 무료 예매가 가능하지만, 발권 수수료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전주국제드론스포츠센터 등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서 펼쳐지는 이번 대회는 ‘드론축구, 하늘을 열고 세계를 잇다’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다.

전 세계 32개국 선수단이 참가하는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인 이번 대회는 전주시와 국제드론축구연맹(FIFA), 국토교통부, 전북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드론축구의 중추도시 전주에서 열리는 첫 번째 월드컵이다.

특히 첫날 오후 6시에 시작되는 개막식은 스포츠와 문화가 어우러진 특별한 무대로 꾸며질 예정이다.

개막식에서는 세계 정상급 선수단의 입장을 시작으로, △개막선언 △선수단·심판대표 선서 △드론축구 퍼포먼스가 이어져 대회의 서막을 연다.

이어 라이즈(RIIZE), 아홉(AHOF), 아이칠린(ICHLIN), 감화재 등 인기 가수들이 무대를 꾸미며 축제의 열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식품안전관리 우수 집단급식소’ 신청 접수

전주시가 대규모 식중독 사고 예방 등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집단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

시는 24일까지 전주지역 학교와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공공기관, 병원, 어린이집 등 총 570여 개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 우수 집단급식소’ 지정 희망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집단급식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식중독 발생을 예방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최소 50인 이상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의 경우 많은 인원

이 함께 식사하는 만큼, 식재료와 시설, 종사자 개인위생 등 위생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시는 신청한 집단급식소에 대해 △시설 환경 △개인위생 △공정관리 △보관·운송 등 총 32개 항목에 대해 현장평가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중 16개 업소를 ‘식품안전관리 우수 집단급식소’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업소에는 ‘식품안전관리 우수 집단급식소’ 현판이 부여되며, 사전 수요 조사 결과 선호도가 높은 식중독 예방 물품도 지원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운영자는 관할 구청 청소위생과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권희성 기자



우범기 전주시장이 강한 경제 전주를 만들어온 주역인 산단 노동자들을 찾아가 든든한 아침 식사를 전달했다.

우범기 전주시장, 산단 노동자 아침 식사 전달

아침 식사 지원사업 '매주 수요일엔(&) 수요일든 밥상' 일환 추진

우범기 전주시장의 강한 경제 전주를 만들어온 주역인 산단 노동자들을 찾아가 든든한 아침 식사를 전달했다.

우범기 시장은 10일 이른 아침 (쥬유) 나운씨네 주차장(덕진구 신북로 105)을 찾아 산업단지 새벽 출근 노동자를 대상으로 아침 식사를 배부했다.

이번 행사는 노동자의 아침 결식 해소와 먹거리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한 산단지역 노동자 아침 식사 지원사업인 '매주 수요일엔(&) 수요일든 밥상'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특히 이날 아침 식사 지원에는 이운영 전주시산업단지협의회장과 박병철 NH농협 전북지부 노동조합 위원장, 하양진 NH농협은행 전주시지부장, 정찬모 (쥬유)비스 파트장, 김민철 HS효성 첨단소재 탑장 등 후원기업·단체 5명

과 윤방섭 (재)전주시복지재단 이사장, 양순기 한국외식업중앙회 덕진구 지부장 등 협약단체가 동참했다.

구체적으로 이날 NH농협 전북지부 노동조합과 NH농협은행 전주시지부는 식혜와 떡을 기부해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이를 통해 이른 아침 출근길에 나선 산단 노동자들은 간편식과 함께 기부 물품을 받아 하루를 든든하게 시작할 수 있었다.

우범기 시장은 “기업·단체와 시민이 힘을 모아 노동자의 아침을 지키는 일에 함께해 의미 있는 아침 출근길이 됐다”면서 “전주시는 앞으로도 상생과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고, 노동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확대 지정

전주시가 미래 주역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거리를 오갈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하고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기로 했다.

시는 최근 새롭게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4개소에 대한 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상원리나유치원 앞 천잠로 일원과 이계순의동화숙어린이집 앞 난전들로 일원 등 지난 1일 신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2곳과 더불어 기존보다 보호구역이 확대된 송천초등학교 후문 송천로 일원과 남초등학교 폭문 학봉1길 일원을 포함 한 모두 4곳이다.

해당 구간은 평소 어린이들이 자주 통행하는 길이지만 많은 차량 통행량으로 인해 사고 발생 위험이 우려되던 곳이다. 이에 학교장과 시설장은 보호구역 지정 필요성을 시에 건의했으며, 시는 경찰 등 관계기관의 합동점검 등을 통한 여건 분석을 거쳐 어린이보호



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신규·확대 지정됨에 따라 더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해당구역에 대한 안전 시설물 설치에 착수했다.

세부 사업은 △보호구역 시·종점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과 구간 내 주정차 금지 표지판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구간 및 제한속도(시속 30km) 바다 표시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하고 이달 말까지 모든 정비사업을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렸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전인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은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선화당

관공각

내아